



한국틴스타

2015년 3월
제41호

www.teenstar.or.kr



가정사목의 산파(産婆), 틴스타!

강형섭 신부

마산교구 가정사목국장 / 제115차 워크숍 수료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 창조사업에 동참하러 왔다.”

저는 현재 혼인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이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면 예비부부는 ‘창조’라는 말에 자녀를 많이 가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께서 홀로 왕복 6시간 걸리는 성당을 걸어 다니며, 교리와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가족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안방에 모여 1시간 아침기도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 기도의 기간은 고등학교를 가기 전까지 1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제게는 하느님 사랑의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창조사업이 혼인하는 젊은이들부터 시작되어야함을 늘 강조하곤 합니다.

태초 하느님께서는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또한 이들을 갓난아기가 아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성인으로 지어셨습니다. 이를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에서 아담이 손을 내밀어 하느님과 마주하고 대화하는 생명 가득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룩하신 창조의 사업을 인간이 그대로 전해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원의 창조사업에서 아담과 그 아담이 홀로 있음에 그의 거들 짝으로 하와를 창조한 것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래서 현 교회 사목의 시발점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는 젊은이들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곧 혼인을 시작하는 이 시점을 사목의 중심에 두고 본당과 교구의 사목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혼인을 통해 그 부모를 떠나 새롭게 사랑의 열정과 신뢰로움으로 건강한 가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가정 안에서 시작되기에 우리는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부르고 축복합니다.

임신 수개월 전부터 부부가 자녀의 은총을 청하고 준비하며 그러한 결실로 출산을 맞이할 때 그 경이로움은 가득합니다. 새 생명을 가슴에 안고 감격하는 부부의 모습은 이제 한 아기의 아빠 엄마가 되는 책임감과 거룩함을 온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바로 하느님 창조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로서 가지는 환희의 기쁨이며 생명의 거룩한 신비감을 체험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잘 알려주는 것이 배란법인 것입니다. 배란법을 통해 잘 구성된 틴스타 프로그램은 생명으로 열려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정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력을 잘 가꾸며 하느님 창조사업을 성실히 이어가며 몸과 맘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에 틴스타는 생식력을 자각하는 청소년들에게 책임감이라는 맥락에서 자신을 알아 그 신비로움을 존중하고 가꾸게 하여, 자기 자신다움을 바라보게 하는 성교육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신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섯가지 영역에서 아가페와 에로스가 통합된 온전한 모습으로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 다섯가지 영역에는 신체적인 변화와 성숙, 정서적인 끌림과 매력, 지적인 측면의 새로움과 앎의 기쁨, 사회적인 헌신과 나눔, 영성적인 성숙과 일치감을 느끼고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곧 베네딕도 교황님의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회칙의 아가페와 에로스의 사랑을 잘 통합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가정과 복음화’라는 주제로 임시 총회를 바티칸에서 가졌습니다. 가정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토의가 이루어졌고, 교회가 일차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일차적인 원상징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원상징인 육체의 모습을 존중하고 수용함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앎으로써 더 자신다워지게 됩니다. 틴스타는 바로 이러한 자기 성적 정체감을 잘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자기다움에서 진정한 창조의 힘이 드러나며 이성에게 매료되고 사랑하며, 하느님의 창조의 업적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가진 생명력과 새로운 생명에로의 문이 활짝 열려있게 하는 틴스타는 성교육

중에 성교육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나의 생명을 너에게 선사하고 너의 생명을 오롯이 환희로 받으며 새로운 생명의 신비를 두 팔로 받아 안습니다. 이것이 생명력이고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작년엔 저희 교구에서 틴스타 워크숍을 개최하고 심화과정을 거치며 은총의 협력자들인 봉사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구 틴스타 봉사자팀도 저희 가정사목국에서 새롭게 탄생한 한 아 기입니다. 사목의 중심에 바로 생명을 노래하는 성(性)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성지여고에서의 틴스타 수업을 첫 출발로 이제 생명을 노래하는 우리의 일이 산파(産婆)적인 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왜 틴스타가 생명에 생명을 더하게 하는가?’ 바로 아담이 하느님과 손끝으로 마주하고 있듯이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하느님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가정사목국에서 실시하는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가나혼인강좌, 약혼자주말, 엠이주말 등 모든 것이 결국은 하느님과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정서적이고 지적이고 영성적인 부분의 교감을 이루며 그 몸으로 주변 사회와 통교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다루고 노래하는 성과 생명의 교육이 바로 틴스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더욱 생명에게끔 함께 해주신 한국틴스타와 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생명이 더 생명을 얻도록 산파의 역할을 하는 틴스타 프로그램을 공유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또 챙겨주고 싶은 수업, 틴스타

이 해 련

보건교사 /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

틴스타라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였을 때 사실은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교육을 실시해왔던 경험으로 과거의 교육내용과 어떻게 다르며,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었다. 그런데 실제로 틴스타 수업이 진행 되면서 이런 의문은 사라지고 학생들의 태도가 변화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과거에 이미 해오던 성교육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학생들이 틴스타 성교육의 횡수가 거듭 될수록 틴스타 교사들과 친숙해지며 소통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틴스타’의 궁극적 목표가 일반적인 성교육의 차원을 넘어,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이며 소홀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까지 제공하는 수업이란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더해가는 것에 지나지 않고 건강한 성이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며 스스로의 견해를 확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 수업을 학교에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 큰 자부심과 만족감, 또 감사한 마음마저 갖게 되었다.

교육현장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며 많은 고민을

했던 보건교사로서 ‘틴스타’ 교육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세심하게 계획된 여러 과정 중에서 특히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과 함께 하는 1:1면담인 것 같다.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해주고 건강상태, 고민 등의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는 교사의 모습에 학생들은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았다. 때로는 처음부터 틴스타 수업에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학생들조차 마지막 수업시간에는 아쉬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그리고 선생님께 깊이 사과하며 다음 교육의 기회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들을 보면서 다음 해에도 이 교육을 꼭 받도록 해주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요즘 청소년 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고등학생 뿐 아니라 더 폭넓은 연령층을 향한 틴스타 수업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1년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도 빠짐없이 높은 곳에 위치한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많은 학교에서 틴스타 교육이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는 2009년부터 틴스타 수업이 진행되어 왔다.)



내 욕구가 발동한다 할지라도 ...

정재우 신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나는 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만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럼 언제 사랑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으로 되는 것일까... 그것은 상대를 배려하기보다 나의 만족이 우선시 될 때 상대에 대한 사랑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충족을 더 우선시 하게 되면 사용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상대보다 나를 우선시하고 나를 위해 봉사해주도록 육체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상대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기보다는 이기적인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에 있어서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의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점점 극단적으로 가고 강하게 드러날수록 그것은 폭력이 된다. 그래서 성에 있어 가장 이기적인 표현은 하나의 폭력이 되고 이기주의와 공격성은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길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사랑을 이기주의와 공격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가톨릭에서는 정결이라 한다. 정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험이 없다, 깨끗

하다, 때 묻지 않았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기주의와 공격성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그래서 내 욕구가 발동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삼가 할 줄 아는 그런 힘, 내면의 힘을 정결이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의 상태라기보다는 대단히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내 안의 태도이고 나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정결을 덕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힘이 기 때문에 나의 욕구의 힘, 이것에 맞설 줄 아는 힘을 길러야하는데 그 힘이 약하게 되면 머리로만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 그 쪽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본다면 정결은 정신적인 힘이고 내면의 힘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자유로움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우리는 보통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을 자유라 얘기하고 누군가 간섭하고 억압하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하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내 안에서

의 자유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인터넷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즐기고 책을 읽어야지’, ‘컴퓨터는 멀리하고 우선 책부터 펴야지’ 하면서도 방에 들어가서 어느새 컴퓨터를 켜고 있다면 그만큼 나 자신의 내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정결은 자유롭게 사랑 안에서, 특히 성이라는 것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나의 내적인 힘이고 이것은 길러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결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또 나의 욕구를 그때그때 해소해오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결을 지키고자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살아 온 방식 때문에 이 사람을 제대로 배려해 주지 못하는 면이 있게 된다. 이것은 정결이라고 하는 덕이 약할 때, 내면의 힘이 약할 때 드러날 수 있다. 그러므로 정결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부부사이에 정결은 필요한가... 부부사이에 정결은 필요하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 사

람 사이에서 잉태되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성행위를 삼가할 줄 알고 조절할 줄 아는 내면의 힘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성욕구가 주기와 상관없이 늘 지속적으로 나오는, 신체적으로 역동적인 구조를 가진 남성에게 정결이라고 하는 책임의 차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성행위를 할 때 남성은 발산의 행위를 하면서 그 이후에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지만 여성은 받아들이는 행위를 하고 자신의 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을 자신의 몸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성행위를 할 때 이미 여성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남성은 그것을 몸으로 잘 알지 못하여 성에 있어 책임감을 조금 더 배우고 교육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남성들에게 생명을 생각하게 하는 차원에서의 정결을 좀 더 많이 가르쳐 상대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2014년 한국틴스타 전국교사모임 강의 중 발췌



2015년 우리 이렇게 시작했어요!



115 차 마산워크숍



116 차 서울워크숍



117 차 대구워크숍



118 차 울산 워크숍
“우리 이번에 첫 워크숍이었어요~”



119 차 광주 워크숍



☆ 한국틴스타와 착한목자수녀회가 함께하는 화해 피정 안내

- 주관 및 주최 : 한국틴스타 / 착한목자수녀회
- 대상 :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 (선착순 8명, 당일 접수 안 됨)
- 일정 : 월 1회 개최 (2박 3일) 첫째 날 오후 3시~ 마지막 날 오후 1시30분
- 날짜 : 2015년 4월 27일(월) ~ 29일(수)
- 장소 : 경기도 가평 성 빈센트 환경마을
- 참가비 : 한국틴스타에서 전액 후원
- 문의 및 접수 : (02)755-2629, 010-7440-8687



서울

- 116차 워크숍(26명 수료)을 마치고 현재 1개의 심화반을 진행했다.

인천

- 점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안에서 2월부터 중학생을 위한 틴스타 프로그램에 대한 교안 나눔을 시작했다.

대구

- 117차 워크숍(25명 수료)을 마치고 현재 3개의 심화반을 진행하고 있다.
- 효성중학교 동아리모임의 학생을 대상으로 9명의 교사가 틴스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윤일제 행사에 교사 6명이 참가하여 틴스타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광주

- 119차 워크숍(36명 수료)을 마치고 현재 2개의 심화반을 진행하고 있다.

마산

- 115차 워크숍(24명 수료)을 마치고 마산교구 가정사목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첫 교사 양성을 위한 교안나눔이 진행되고 있다.

울산

- 118차 워크숍(명 수료)을 마치고 2개의 심화반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학교	광주	살레시오여자중학교(중)A, B	강미숙 선생
		살레시오여자중학교(중)	박현화 선생
		살레시오여자중학교(중)	이명호 선생
		살레시오여자중학교(중)A, B	이유미 선생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고)	김사라 선생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고)A, B, C	김해은 선생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고)A, B, C, D	박경단 선생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고)A, B, C	박하영 선생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고)A, B, C, D	박현화 선생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고)	손숙희 선생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고)A, B	장현옥 선생	
	대구	경산여자중학교(중)A	전수영 선생
		경산여자중학교(중)B	홍경희 선생
		근화여자고등학교(고)	전수영 선생
		대건고등학교(고)	김성범 선생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총)	박광훈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총)A, B	김정숙 선생
		대구가톨릭대학교(총)A, B	백민주 선생
		대구가톨릭대학교(총)A, B	이승현 선생
		산자연중학교(중)	이영동 신부
		산자연중학교(중)	설성욱 선생
	서울	산자연중학교(중)	박광은 선생
		산자연중학교(중)	노연희 선생
		난우중학교(중)	이필숙 선생
		무학중학교(중)A, B	김길환 선생
		무학중학교(중)A, B	김영숙 선생
		무학중학교(중)A, B	정유리 선생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강정애 선생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김영숙 선생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김혜정 선생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박경숙 선생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박진경 선생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임복규 선생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정혜경 선생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조혜영 선생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주설령 선생	
상명사대부속여자고등학교(고)	한명례 선생		
서울대교구 대신학교(총)	김동렬 수사, 김혜선 수녀		
환경여자중학교(중)A, B	이병주 선생		

종교 현황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학교	서울	휘경여자중학교(중)A, B	조영선 선생
		박문중학교(중)	손문희 선생
	인천	박문중학교(중) A, B	김수진 선생
		인천기독교대학교 신학대학(총)	안병욱, 조정옥 선생
		학익고등학교(고)	조은조, 김기환 선생
충남	천안월봉고등학교(고)	강정혜 선생	
종교 단체	부산	병영 성당(고)	이정익 선생
		병영 성당(고)	하영애 선생
	서울	예수수도회(총)	김수경 수녀
		가재울 성당(총)A, B	이필숙 선생
		구로2동 성당(총)	정은주 수녀
	수원	성복동 성당(중)	권기연 선생
	인천	연수동 성당(중)	손문희, 김기환 선생
		제주	생명의 샘(총)
	생명의 샘(총)		
	기관	광주	무지개 지역아동센터(중)
함께할 새누리지역아동센터(고)			박경단 선생
대구		경북과학대학(동아리모임)(총)	임순선 선생
		대구대학교구 4대리구청(총)	신현옥 선생
		청수회 동아리모임(총)	김미영 선생
서울		꿈나무 마을(고)	이창영 신부
		화곡성모공동생활가정(중)	이연숙 선생
인천		선민아이들세상 & 하늘씨앗(중)	이병주 선생
		스텔라의 집(총)	이정림 선생
	인천 립 자활센터(고)	강성실 선생	

진행 현황

분류	지역	현 장 명	담 당 교 사	시작일
학교	서울	하비에르국제학교(중)A, B	고정민 선생	2015. 1.23
				2015. 1.19
종교 단체	광주	비아 성당(총)	장남희 선생	2015. 1.10
		비아 성당(총)	손숙희 선생	2015. 1.10
		비아 성당(중)	이명효 선생	2015. 1.10
		비아 성당(중)	김영환 선생	2015. 1.10
기관	경기	부천 시흥 은행동 생협(총)	조정옥 선생	2015. 1.19
		서울	복자여명의 집(새터민) (고)	이필숙 선생
	서울학습도움센터(총)		강정애 선생	2015. 1.28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중)		김석환 선생	2014.12.23
	인천	선민지역아동센터(중)	김기환 선생	2015. 1.19
		청소년쉼터별마루(고)	안병욱 선생	2015. 1.21



알림/방

☆ 2015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종료 현황

제116차 서울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한국틴스타 본부
- 기간 : 1월 5일(월) ~ 8일(목)
- 장소 : 노동사목회관(보문동)

제118차 울산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부산교구 울산대리구 청소년사목
- 기간 : 1월24일(토)~25일(일), 31일(토)~2월1일(일)
- 장소 : 울산 병영 성당

제117차 대구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한국틴스타 대구지부
- 기간 : 1월13일(화) ~ 16일(금)
- 장소 : 대구대교구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제119차 광주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광주대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 기간 : 1월29일(목) ~ 2월 1일(일)
- 장소 :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 2015년 한국틴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진행 현황

제120차 마산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천주교마산교구 가정사목국
- 기간 : 4월 14일(화) ~ 17일(금)
- 장소 : 천주교마산교구청

제121차 서울

- 주관 : 한국틴스타 본부
- 주최 : 한국틴스타 본부
- 기간 : 7월18일(토)~19일(일), 25일(토)~26일(일)
- 장소 : 노동사목회관(보문동)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틴스타는
후원하신분과 틴스타교사를 위해
매일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있는 CMS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거나 본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후원통장 : 우리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5-100-998647
- 국민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875401-01-517401
- 신한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100-021-644868
- 외환은행(예금주: 한국틴스타) : 611-016668-535

발행일 : 2015년 3월 1일

발행처 : 한국틴스타

주 소 : 서울 중구 명동길 80번지 가톨릭회관 603호

전 화 : 02)755-2629

발 행 인 : 변수운 바울라 수녀

홈페이지 : www.teenstar.or.kr

E-mail : kteenstar@hanmail.net

팩 스 : 02)727-2243